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건립 구체화

신세계프라퍼티, 사업 설명...민간투자법·가점 여부 주목

광주 어등산에 초대형 복합시설을 짓겠다고 나선 신세계프라퍼티가 18일 광주시에 구체적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 전체 회의를 열었다.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에 대한 법·행정·기술적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원스톱 행정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관·군·국, 자치구, 광주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다.

신세계프라퍼티 측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복합쇼핑몰을 넘어선 세상에 없던 미래형 복합 라이프스타일 센터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규모는 어등산 부지 내 41만7531㎡, 연면적 53만6900㎡이다.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광주만의 새

로운 콘텐츠인 압도적 규모의 휴양·레저·문화 등의 인프라를 결합한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사업은 광주시가 소유한 공유지(어등산관광단지)에 기업이 투자사항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3차공모 절차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업과의 협상과정 등을 통해 사업이 이뤄진다.

광주시는 신활력행정협의체 사전검토와 민간사업시행자 지정, 시민·시의회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8년간 표류하던 어등산관광단지가 서남권 핵심 관광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광주시는 투명·공정·신속성의 원칙에 따라 시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형만 기자



장흥군, 겨울바다 보물 ‘매생이’ 수확 한창

장흥군 대덕읍 내저마을 갯벌에서 설 대목을 앞두고 매생이 수확이 한창이다. 내저마을 매생이는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향으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장흥군 제공

실내 마스크 벗는다...완화 시점 내일 발표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초읽기’...안정화 양상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석 달 만에 연일 최소 규모로 발생하며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점으로는 설 직후인 25일 또는 오는 30일, 늦게는 2월1일까지 거론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6908명이 추가돼 누적 2989만8142명이 됐다.

이번 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해 10월 말 이후 약 3개월 만에 연일 최소 규모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91일 만에 최소치인 1만4144명, 전날인 17일엔 화요일 0시 기준 13주 만에 최소인 4만199명, 이날은 수요일 0시 기준 13주 만에 최소인 3만6908명이다.

최근 4주간 수요일 기준 확진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28일 8만7491명→1월 4일 7만8550명→11일 5만4333명→18일 3만6908명으로 3주 연속 감소했다.

국내 발생 사례는 3만6828명, 해외 유입 사례는 80명이다. 이 중 14명은 공항·항만 등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6637명, 인천 2272명, 경기 9837명 등 수도권에서 1만8746명(50.8%)의 확진자가 나왔다. 비수도권에서는 모두 1만8148명(49.2%)이 확진됐다. 부산 2417명, 대구 1740명, 광주 1016명, 대전 1020명, 전남 1083명 등이다.

/김도기 기자

광주시 기초연금 인상	2번
검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3번
남도장터 매출 역대 최대	4번

올해 광주 경제 ‘민생안정·미래투자’ 방점

2023 경제전략 발표...‘광주 경제, 든든함 더하기’

소상공인 등 경제 위기 극복 중점 지원

2991억 원 투입...신규사업 18개 등 총 46개 사업

강기정 시장은 18일 “올해 광주시 경제정책의 큰 방향은 민생안정과 미래투자”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제7차 민생경제대책본부회의를 열고 ‘2023 광주 경제, 든든함 더하기+’ 정책 전략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민선 8기 첫 시작은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과 함께 민관의 역량을 결합한 민생경제대책본부 운영이었다”며 “올해 처음 열린 민생경제대책본부회의는 광주 경제 공동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

2023년 광주 경제시계를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새 출발의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물가 부담이 지속하고 민간소비는 위축될 것이다.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 모두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 부채 비중도 전국 최고인 6.5% 수준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또 “맞춤형 위기대응 경제백신을 통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창업생태계 크기를 키우고 광주산업의 질적 성장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여는 투자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청년부터 장년·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규모를 더 확대하고 위기가정과 취약계층 중심으로 주거·교통·에너지·생계지원금 범위를 늘렸다”며 “소상공인 특별보증 규모도 본예산에서 편성한 1000억 원에서 추가로 400억 원을 반영해 1400억 원 규모로 보증과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컨트론타워 역할을 할 골목상권진흥전담기구를 설립, 중소기업 위기 대응 시스템 장착 등에도 속도를 낸다.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 전환을 통해 미래산업 경쟁력을 선점해 나간다.

강 시장은 “인재와 기술 유치를 핵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색깔 있는 성공창업 도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양날개를 중심으로 반도체·배터리·에너지·디지털 헬스케어 등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산업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며 “기존 산업의 재도약과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크기와 형태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꾸기 위한 과감한 선제적 노력도 기울인다. 광주를 기업하기 좋은 기회의 땅으로 재탄생 시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강 시장은 “상반기 조기 추경을 통해 46개 사업이 민생경제를 살리고 재정이 적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일상 기자

생활속 물 절약 함께해요!

양변기에 물 채운병 넣기

설거지 전 미리 휴지로 닦기

양치컵 사용하기

한 번에 모아서 빨래하기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